

옷의 힘

THE POWER OF CLOTHING

유니클로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22

Vol.22

Published in September, 2020

Special Feature

유니클로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 INDEX
- 2-3 유니클로의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들이 공식 경기에서 착용하는 재생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DRY-EX' 스포츠웨어
 - 4-7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의 10.4개에 달하는 삼림면적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효과를 가진 옷이 있을까요?
 - 8-9 물 한잔 분량으로 완성되는 청바지란 어떤 의미인가요?
 - 10-13 많은 여름 의류에 사용되는 부드러운 레이온은 지속가능한 소재인가요?
 - 14-15 옷장 속 입지 않는 유니클로 다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16 코로나19 대응

유니클로의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는 공식 경기에서 재생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DRY-EX' 스포츠웨어를 착용합니다.

<https://store-kr.uniqlo.com/display/displayShop.lecs?storeNo=83&siteNo=50706&displayNo=NQ1A01A08A64>



“페트병이 재생 폴리에스테르로 재가공되어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재탄생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착용해보니 기능성과 착용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유니클로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로저 페더러

Roger Federer | 프로 테니스 선수

“혁신적인 리사이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이미 사용한 페트병을 스포츠웨어로 만드는 일은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긍정적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시코리 케이

Kei Nishikori | 프로 테니스 선수



“제 고향인 스코틀랜드는 환경 분야에 있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이 사실이 자랑스롭습니다. 'DRY-EX'를 입고 경기에 참여하며 지속가능성 증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고든 레이드

Gordon Reid | 프로 휠체어 테니스 선수

해외 원정을 다니기 시작한 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름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올해 초 호주 오픈도 그랬습니다. (쿠니에다 선수는 남자 단식에서 10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호주에서는 급격한 강수량 감소와 기록적 폭염으로 대규모 산불이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이 대회가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졌으며 일정 기온과 습도를 초과하면 경기를 중단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준결승에서 1세트 도중 심판이 경기 중단을 선언하여 6시간 정도 대기한 적도 있습니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땀을 많이 흘립니다. 경기 중 땀으로 인해 옷이 몸에 달라붙게 되면 경기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유니클로의 'DRY-EX'는 땀을 많이 흘려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서 움직이기 좋습니다. 새로 나온 'DRY-EX'를 입고 호주 오픈에 출전했는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쾌적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더위 속에서 쾌적함을 유지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 옷이 페트병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또한 자연 환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뿐 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DRY-EX'를 입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편안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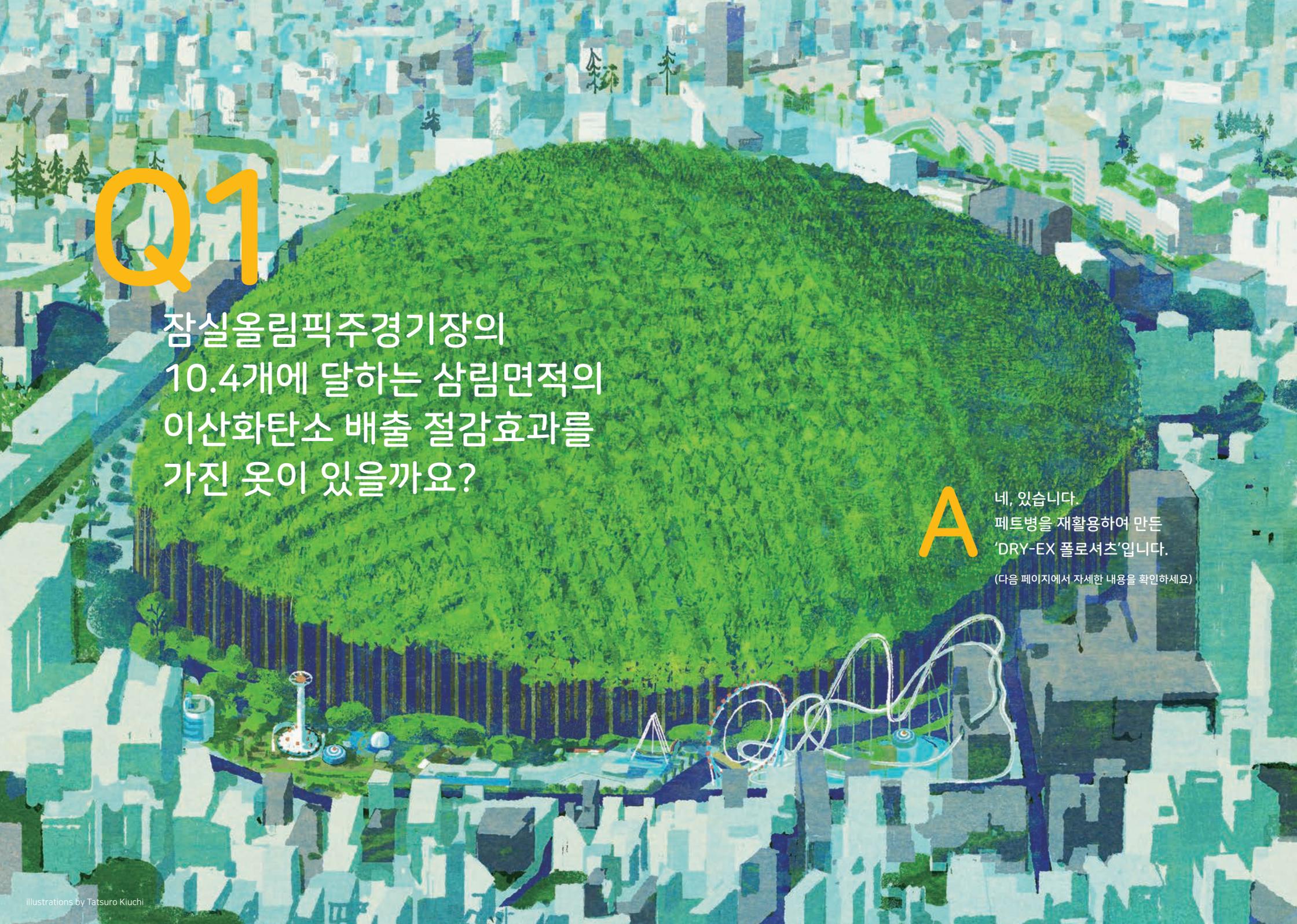
새로운 'DRY-EX'는 땀을 흘려도 몸에 달라붙지 않아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쿠니에다 신고

Shingo Kunieda | 프로 휠체어 테니스 선수



1984년 2월 21일 도쿄에서 태어난 쿠니에다 신고는 세계 최고의 프로 휠체어 테니스 선수로 그랜드 슬램 싱글 우승 27회를 기록했다. 2007년에는 사상 최초로 휠체어 테니스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우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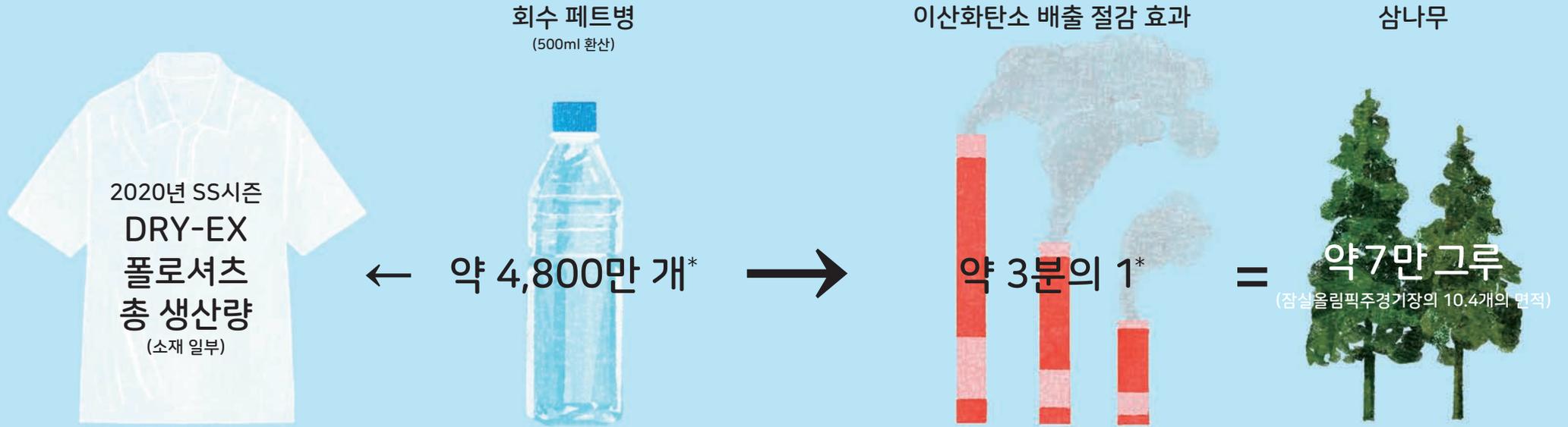


Q1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의
10.4개에 달하는 삼림면적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효과를
가진 옷이 있을까요?

A

네, 있습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DRY-EX 플로셔츠'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페트병 수량은 DRY-EX 폴로셔츠 2020년 SS시즌 총생산량을 바탕으로 도레이가 계산한 수치

* Kyoei Sangyo Co., Ltd.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페트병과 원유에서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도레이가 계산한 수치

페트병을 재활용한 지속가능 'DRY-EX'의 탄생

제품 생산공정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는 유니클로가 가진 지속가능성에 관한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유니클로는 '옷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도레이와 협력하여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해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생산하면 원유로 생산할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미 사용한 페트병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새로운 필터링 기술 덕분에 품질 좋은

특수 섬유의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DRY-EX'의 특징인 높은 흡습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세계 정상급 테니스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착용감도 자랑합니다.

앞으로도 유니클로는 환경을 생각한 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유니클로 DRY-EX 폴로셔츠와 피케폴로셔츠는 뛰어난 흡습성,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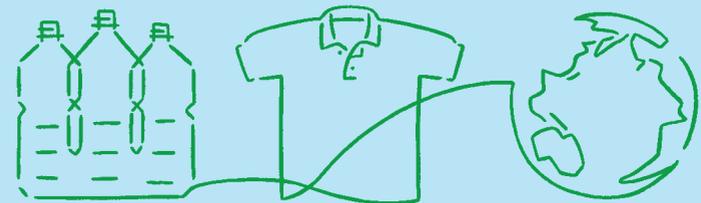


Illustration by Yu Nagaba



물 한잔 분량으로 완성되는 청바지란 어떤 의미인가요?

Q2

(최소의 경우)

A 지금까지는 청바지 생산의 마무리 공정에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했습니다. 유니클로는 이제 청바지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물의 양을 대폭 줄이고 환경에 도움이 되면서도 보다 더 우수한 청바지를 만듭니다.

청바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공정에서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의 부족과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유니클로는 청바지 공장의 물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가공과 마무리에 사용하는 물을 최대 99% 절감하여, 물 한잔 분량만으로 제작합니다.* 유니클로는 2020년 말까지 모든 유니클로 청바지 생산에 해당 가공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남성용 레귤러 피트진 (68번 색상) 생산 데이터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오존 미스트 세탁기. 물 대신 미세한 나노 버블을 사용한다.



스톤 워싱에 사용하는 에코 스톤. 사용 수명이 길고 배수 과정에서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인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며 세척 횟수도 줄일 수 있다.

샌드 페이퍼 작업이 필요했던 빈티지 가공도 레이저 머신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노동 환경도 개선되었다.



Q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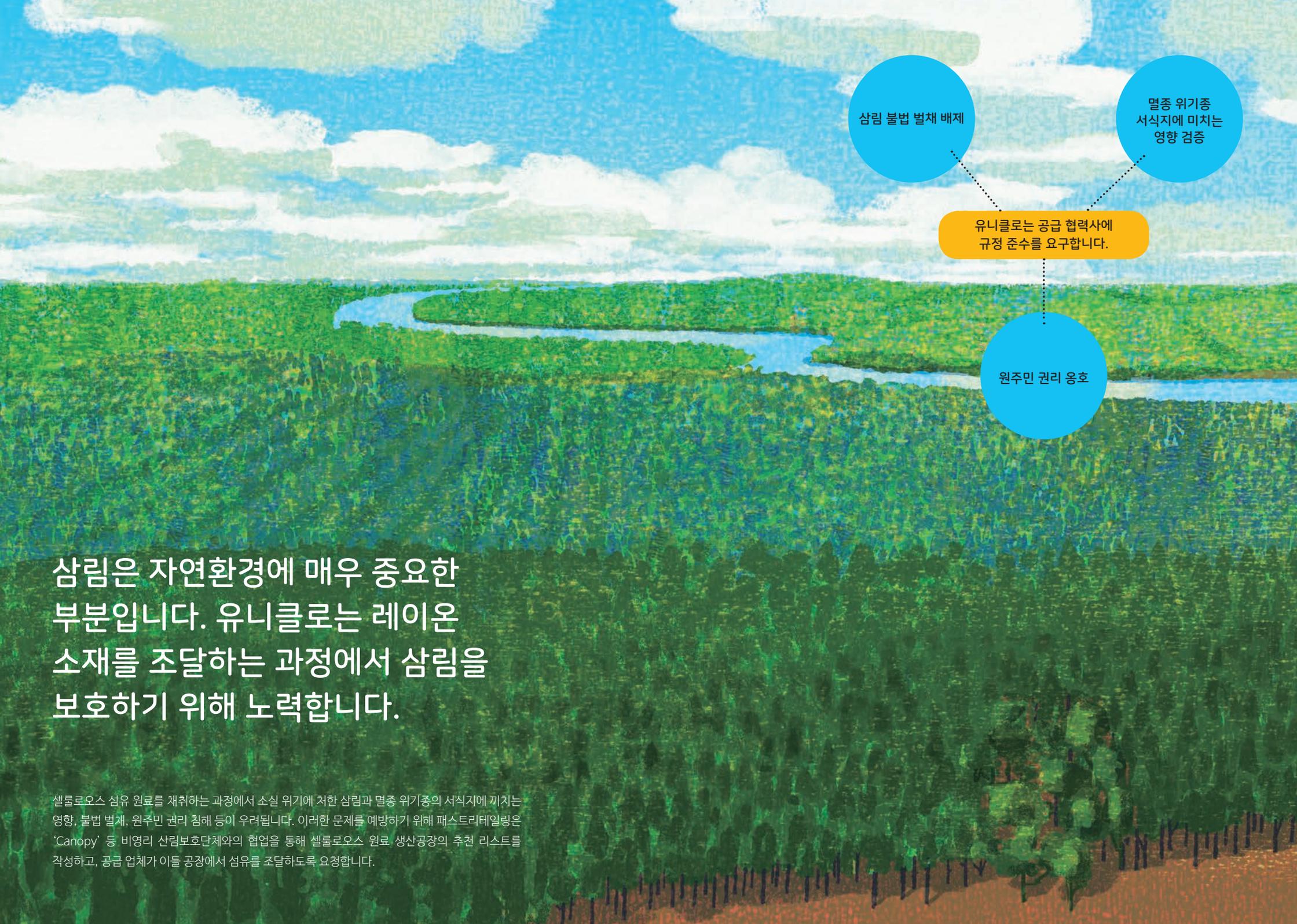
많은 여름 의류에 사용되는 부드러운 레이온은 지속가능한 소재인가요?

A 유니클로는 식물섬유로 만든 레이온의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보호 비영리단체와 협력합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누에 전염병의 유행으로 실크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인조 실크의 개발과 나무와 식물의 셀룰로오스로 섬유를 만드는 방법의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공 방식으로 실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 끝에 탄생한 소재는 윤기가 나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을 가졌으며 '빛나는 실' (ray+cotton)이라는 의미에서 '레이온'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나무 조각 → 셀룰로오스 섬유 → 레이온 원사





삼림은 자연환경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니클로는 레이온 소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삼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셀룰로오스 섬유 원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소실 위험에 처한 삼림과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에 끼치는 영향, 불법 벌채, 원주민 권리 침해 등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패스트리테일링은 'Canopy' 등 비영리 산림보호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셀룰로오스 원료 생산공장의 추천 리스트를 작성하고, 공급 업체가 이들 공장에서 섬유를 조달하도록 요청합니다.

옷장 속 입지 않는 유니클로 다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4

A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은 매장으로 가져와 주세요. 가져오신 옷은 가치 있는 자원이며 새로운 다운 제품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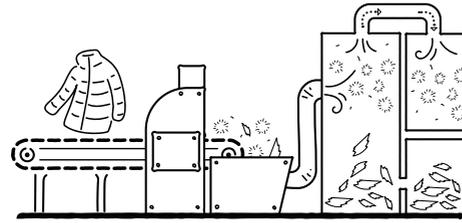
Illustration by Yu Nagaba

다운 제품의 재활용은 옷의 소재인 깃털과 옷감을 수작업으로 분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유니클로는 도레이가 새롭게 개발한 완전 자동화 분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수작업에 비해 50배 빠른 처리 속도로 옷감과 깃털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리털이 가득 찬 작업 환경에서 진행했던 수작업 공정이 사라지며 노동 환경도 개선되었습니다.

분리 시스템을 통해 회수한 오리털은 세척 공정을 거쳐 새로운 다운 제품의 소재로 재활용됩니다. 다운 제품의 재활용은 귀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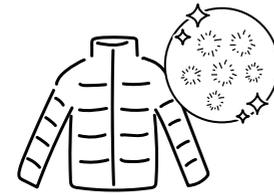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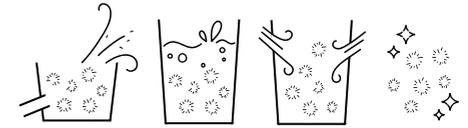
이용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옷을 회수하여 새로운 옷의 소재로 다시 활용하기 때문에 옷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고객에게 회수한 다운 제품을 100% 재활용하여 만든 새로운 다운 제품을 2020년 가을/겨울 시즌부터 판매할 예정입니다. (각 국가별 출시여부 상이)



1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깃털과 옷감 분리 작업을 자동화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합니다.

2 깃털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합니다.



3 깨끗한 깃털을 재활용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다운 제품을 만듭니다.

고객님의 협조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유니클로 다운 제품을 매장으로 가져와 주세요.

유니클로가 과거에 판매한 모든 다운 제품이 대상입니다. (KIDS 제품은 제외)

UNIQLO DOWN RECYCLE



코로나19 대응

유니클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고객과 임직원, 생산 파트너, 지역사회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다양한 사회적 필요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료용 마스크 1,500만 장을 기부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유니클로와 파트너십을 맺은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와 스웨덴 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 등 스포츠 단체 및 다양한 NGO단체를 통한 마스크 기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유니클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및 지역, 국제기관 및 다양한 NGO단체의 요청에 귀 기울이며, 옷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